[ 고무줄 ]

저번에 등불로 만들었던 고무줄을 꺼냈다.

“고무줄로 머리를 묶는 건 어때?”

“...선배.”

“그걸로 묶어 보라구요?”

“응. 위로 올려서 묶어봐.”

“그럼 잠깐만 빌려주세요.”

채아람은 고무줄을 받아 손가락에 끼웠다.

머리카락을 넣으려고 크게 고무줄을 벌리곤

“에잇.”

나한테 쐈다.

“앗 따가!? 뭐해!?”

“선배야말로 뭐예요! 제가 배달 음식이에요!?”

“노란 고무줄로 묶으라니 너무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눈은 안 찔리잖아….”

“차라리 찔리고 말지, 이걸로는 안 묶을래요.”

“그렇게 별로야?”

“네. 아는 여자애들한테 한 번 물어봐요. 다 싫다고 하지.”

머리 묶는데 고무줄은 쓰면 안되는구나.

아는 여자애가 없어서 몰랐지...

“남자애들하곤 다르다구요. 학교에서 꾸미는 거 얼마나 신경 쓰는데.”

“그래봤자 학교잖아. 옷도 교복에, 과하면 선생님이 뭐라 하고.”

“근데 꾸밀 게 있어?”

“다 방법이 있죠.”

“작은 액세서리를 가지고 다니거나, 교복을 조금 줄여서 피트 살리기도 하구요.”

“아니면 저처럼 몰래 안에만 사복 입기도 해요.”

“걸리면 혼나잖아.”

“걸릴 일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선생님이 오면….”

채아람이 순식간에 패딩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짠. 이럼 치마는 교복이니까 선생님도 모른다구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고 나면 다시 지퍼를 내리면 끝!”

“어때요, 절대 안 걸리겠죠?”

“그 말 때문에 더 불안한데….”

“에이, 안 걸려요~ 지퍼만 올리면 끝인데.”

“아.”

툭.

채아람이 당긴 지퍼 손잡이가 끊어져 복도를 굴렀다.

“.......”

“.......”

“선배, 이제 어떡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으으. 어쩌지? 숨겨도 수업 시간에는 들킬 텐데.”

“안에 따로 입을 옷이라도 뭐 없어?”

“따로 입을 옷이면... 아! 맞다! 체육복 있지!”

“그거 입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선배! 체육복 윗도리 좀 빌려주세요!”

“뭐? 네 건 어쩌고?””

“오늘 체육 수업 없어서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반 친구들한테 빌려.”

“저 키 크니까 걔네한테 빌리면 겨드랑이 아프다구요.”

“남자애들은 체육복 맨날 사물함에 박아둬서 냄새나구.”

하긴 남자 중엔 그렇게 보관하는 애들이 태반이긴 하지.

“아, 혹시 선배도 그렇게 보관해요?”

“아니거든.”

날 뭐로 보는 거야. 내 체육복은 주말에 빨래까지 해서 깨끗하다고.

“그럼 빌려줘요~ 학생회에서 돌려드릴게요.”

“...알았어. 체육복 가져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동)

“자, 여기. 상의만 있으면 되지?”

“네! 상의면 돼요!”

“읏차.”

“뭐야. 패딩은 왜 벗어?”

“복도에서 쌤 만날 수도 있잖아요. 미리 입고 가야죠.”

채아람은 바로 위에 체육복을 겹쳐 입었다.

“어때요? 안 들키겠죠?”

“옷이 커서 들키진 않겠네.”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입어서 그런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걸...

“근데 선배.”

채아람이 체육복을 당기곤 코를 킁킁거렸다.

“옷에서 냄새나네요?”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섬유 유연제 냄새요.”

채아람 너. 일부러 그렇게 말했지...

“히히. 선배 의외네요. 빨래할 때 이런 것도 쓰고.”

“.....옷 줬으니까 난 간다.”

“네에~! 고마워요, 선배!”

“다음에 선배가 체육복 빌릴 일 있으면 저도 빌려줄게요!”

“됐어...”

채아람은 내 체육복을 입은 채로 달려갔다.

하아...

쉬는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체력이 쭉쭉 빨린 기분이야….